

■ KIA 루키 한·기·주



“속단치 말고 조금만 더 지켜보세요”

‘속단은 금물, 조금 더 지켜봐 주세요’ 국보투수 선동렬 이후 최고 자원으로 평가받으며 계약금 10억원 시대를 열어젖힌 한기주(KIA·19)가 프로데뷔 후 2연패를 당했지만 자신에 대한 판단을 조금 더 유보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초반 2연패 부진 불구 구단선 느긋

하지만 KIA 구단과 한기주 자신은 초반 부진에 대해 느긋한 입장이다. 이같은 느긋함과 여유는 KIA 서정환 감독의 ‘한기주 키우기’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때문이다.

하지만 서 감독의 이같은 말은 한기주의 고교시절을 알면 이해가 가능하다. 광주 동성고 ‘에이스’였던 한기주는 매경기마다 어김없이 고교생으로는 박한 100개 이상의 공을 뿌려대고 이를 간격으로 선발 출장하는 혹사를 당했다.

작년 5월 KIA 입단 뒤에도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 대회 등 잦은 등판으로 그의 팔은 편히 쉬는 날이 없었다. 결국 지난해 11월 오른쪽 팔꿈치 피로 누적 진단을 받은 뒤 피칭 훈련을 중단하고 겨우내 손에 공을 잡지 못했다.

다행히 한기주도 ‘당찬 신인’답게 초반 부진에 대해 별로 개의치 않고 있다. 오히려 최근 2연패를 좋은 약으로 삼고 있다. 노력 덕분인지, 타고난 천재성 덕분인지, 구위도 갈수록 안정돼 가고 있다는 게 KIA 코칭 스태프의 평가다.

서감독 “미래를 보고 그를 선택했다”

한기주를 전담하고 있는 김태원 투수 코치는 “프로에 거의 적응한 상태고 갈수록 안정된 투구를 보이고 있다”며 “본인도 이번 두 경기를 통해 터득한 단점을 고치려는 자세가 강해 조만간 좋은 결과(첫승)가 나올 것 같다”고 귀뜸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빛바랜 23K ‘괴력투’

〈탈삼진〉

진흥고 정영일 투수 대기록  
대통령배 고교야구 경기고전  
13%이닝 역투 불구 팀은 저

대통령배 고교야구에서 국내 야구 사상 한 경기 최다 탈삼진 기록인 삼진 23개를 잡고도 아쉽게 패배를 기록하는 진기한 기록(?)이 작성됐다.

그 주인공은 진흥고 3학년 정영일(17·사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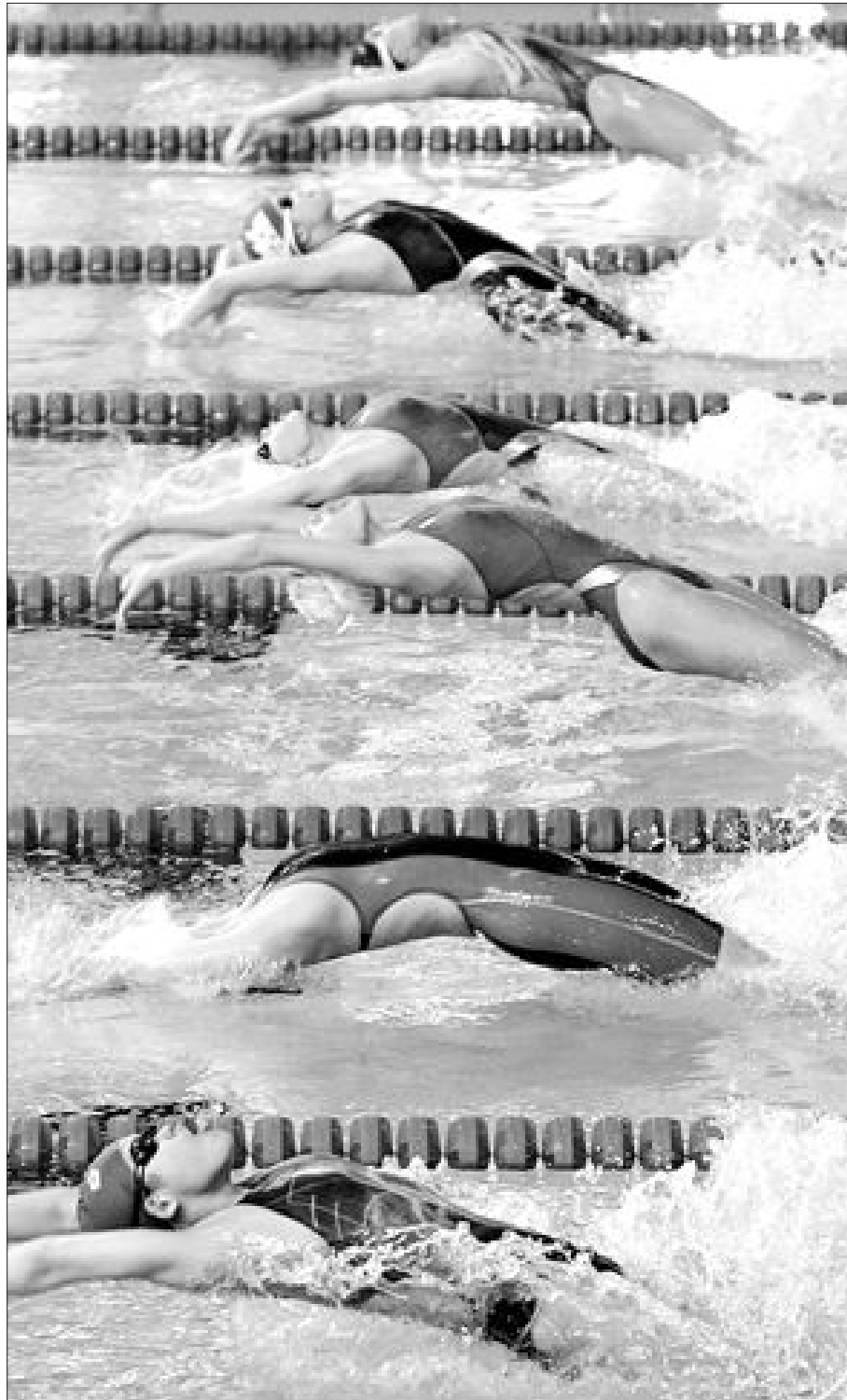
정영일은 18일 동대문구장에서 벌어진 제40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 경기고와 1차전에서 13과 3분의 2이닝 동안 삼진 23개를 속아내며 12안타, 사사구 11개로 6점을 내줬다.

하지만 6-6으로 맞선 연장 16회 1사루에서 경기고 성의준에게 끝내기 안타를 맞고 패전 투수가 돼 대기록이 빛을 바꿨다.

정영일은 지난 17일 경기고와의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해 6과 3분의1이닝 동안 삼진 8개를 속아낸 뒤 6-6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해 서스펜디드게임이 선언돼 18일 다시 9회부터 경기 종료까지 마운드를 지키며 삼진 15개를 추가해 대기록을 작성했다.

한편 정영일은 1928년 휘문고보 한기준, 1975년 철도고 이진우가 갖고 있던 종전 한 경기 최다 탈삼진 22개를 1개 늘려 새 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동아수영대회-여중부 배영 스타트 18일 울산수수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제78회 동아수영대회에서 여중부 배영 예선에 출전한 선수들이 힘찬 스타트를 하고 있다.

18일 울산수수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제78회 동아수영대회에서 여중부 배영 예선에 출전한 선수들이 힘찬 스타트를 하고 있다.

박지성 “영표 형! 미안해”

잉글랜드 맨유-토탈햄 맞대결  
영표 볼 빼야 7호 도움 올려

박지성(25·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태극전사 선배 이영표(29·토탈햄 핫스파)와 벌인 ‘코리아인 프리미어리그’ 맞대결에서 어시스트를 올렸다.

박지성은 17일 밤(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 화이트하트레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5-2006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5차전 토탈햄과 원정경기에서 전반 36분 웨인 루니의 두번째 골을 배달해 시즌 7호 도움을 기록했다.

맨유는 루니가 혼자 두 골을 뽑아내 저메

인 제나스가 한 골을 만회한 토탈햄을 2-1로 제압했다. 박지성의 어시스트는 이영표와 맞닥뜨린 장면에서 나왔다.

전반 36분 이영표가 수비 진영에서 볼을 걷어내기 위해 페널티지역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드리블할 때 뒤에서 바짝 몸을 붙인 박지성은 등지고 있던 이영표 앞으로 왼발을 뻗어 볼을 문전 중앙에 있던 루니에게 패스했다. 이영표는 넘어졌고 패스를 받은 루니는 오른발 강슛으로 네트를 갈랐다.

영국 BBC 방송 인터넷판과 스포츠 전문 사이트인 ESPN 사커넷은 박지성의 패스를 어시스트로 인정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자유형 1,500m  
박태환 랭킹 2위

국제수영연맹 발표

한국 수영의 ‘대물보’ 박태환(17·경기고)이 주종목인 자유형 1,500m에서 세계랭킹 2위로 도약했다. 박태환은 국제수영연맹(FINA)이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쇼트코스(25m) 세계 순위 남자 자유형 1,500m에서 14분33초28로 선두 유리 프릴루코프(14분23초92, 러시아)의 뒤를 이었다. 박태환은 지난 9일 중국 상하이에서 벌어진 제 8회 세계쇼트코스수영선수권대회가 종목에서 은메달을 거머쥔 것을 인정받아 세계 13위에서 무려 11계단이나 순위가 급상승했다.

아테네올림픽 남자 자유형 1,500m 동메달리스트인 데이비드 데이비스(14분35초94, 영국)가 박태환에 이어 세계랭킹 3위, 박태환을 라이벌로 생각하는 중국의 장린(14분36초12)은 4위에 그쳤다.



19일(수)

▲메이저리그<뉴욕 Y-토론토>(08 : 00·Xports), <디트로이트-올랜도>(10 : 55·Xports)

▲제40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중앙고-장충고)(12 : 50·KBS SKY SPORTS)

▲동아수영대회(14 : 10·KBS1)

▲제43회 대통령기 전국 장사씨름대회(16 : 00·KBS SKY SPORTS)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야쿠르트>(17 : 50·SBS스포츠)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1차전(18 : 00·KBC)

▲프로야구 <KIA-롯데>(18 : 30·MBC ESPN)

20일(목)

▲UEFA 챔피언스리그 4강전<아스날-비야레알>(03 : 30·MBC ESPN), (03 : 40·MBC)

제일모직 outlet 전대영구 시거리. 제일모직 본사 직송상품만 취급 60~40% 할인. 백화점 1벌 가격으로 2벌 혜택.

침하된 구조물복원 및 인약지반 강화공법의 신개념. 최첨단 공법, 최강의 성능. 최상의 품질, 최상의 가격.